

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

허 숙 전 경인교육대학교 총장

1. 왜 또 개정하는가?

- (1) 국가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, 우리 교육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?
- (2)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형태나 내용의 변화 또는 교과서의 새로운 편찬으로 끝나는 교육과정 개정은 의미가 없다.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처방적 교육과정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.
- (3) 교육은 생리적으로 보수적이다. 여건을 갖추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자는 것은 변화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. 좀 더 과감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야 한다.

2. '융합형' 교육과정이 '획일형'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.

- (1) "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"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들리는데, 모든 영역을 다 안다는 것은 특별히 잘 하는 영역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.
- (2) 대한민국 학생들은 가뜩이나 많은 필수과목으로 학습 흥미를 잃고 있다. 융합형 교육이 학생들에게 흥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필수과목만 늘려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.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.
- (3) 왜 대한민국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나?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더 발전가능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?

3. 학교에서의 학생평가에서 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논술형으로 전환하자.

- (1) 교육과정 개발만 백워드로 할 것이 아니라, 학교교육 개혁도 평가체제 개선부터 시작하는 백워드로 하자. 일부 형성평가를 제외하고 학교에서의 모든 시험 평가는 선다형 객관식 형태를 금지하고 논술형으로 전환하면 어떨까? 객관식 선다형 시험으로 창의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.

- (2)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보다 명료화했으면 한다. 초등학교는 ‘기초생활 습관의 형성’, 중학교는 ‘시민정신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’, 그리고 고등학교는 ‘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과 준비’ 라는 교육목표가 더 강조되었으면 한다.